사상체질의학회지 2006;18(2):113-124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Vol. 18, No. 2, 2006;113-124
http://www.esasang.com

四象醫學에서 심리 및 정신치료의 중요성과 활용에 대한 모색

김정주 · 박성식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A Psychotheraphy for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Kim Jung-Ju, Park Seong-Sik

Depart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1. Objectives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s based on difference of Nature & Emotion(性情). The mind is held in high value to characteristics of each constitution's symptoms and prescriptions. This study is for psychotheraphy with Herbal medicines,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 Methods

Comparing with 『DongYi Soose Bowon Gabobon』 and 『DongYi Soose Bowon ShinChukbon』, we research the principle of human's organization which is connected with their talent and will.

3. Results and Conclusions

(1)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nsider human being more than disease in medical science. A Human being works up to take a reasonable in modern societies, as making friends, a practice of his daily life, mentality.
(2) Psychotheraphy is as important as each constitution's symptoms and prescriptions on clinical medicine
(3) Taeyangin should be moderate when expressing their sorrow & anger(哀怒) and take a step backward for a real purpose(恒心).
(4) Soyangin should be moderate when expressing their sorrow & anger(哀怒) and watch the interior for a real purpose(恒心).
(5) Taeumin should be moderate when expressing their happiness & pleasantness(喜樂) and watch the exterior for a real purpose(恒心).
(6) Soeumin should be moderate when expressing their happiness & pleasantness(喜樂) and go one step forward for a real purpose(恒心).

Key Words : Psychotheraphy, Take a Reasonable, Nature & Emotion(性情), The Mind, Constitution's Symptoms and Prescriptions

Ⅰ. 序 論

정신과 육체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동무는 허준의 形象醫學적 차등성 정신을 이어받아 形心論的 形象醫學을 완성하였다[2]. 동무는 鄙薄貪懶의 心慾과 喜怒哀樂의 肺脾肝腎 臟理로 인간을 구분[6]하였고, 여기에서 四象人 고유의 體質證과 病證체계와 運營藥理가 생기게 된다고 하였다[3]. 이에 사상의학의 특징을 心身論的 의학이며 知人正己論을 바탕으로 治心治病을 치료의 근본 정신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4]. 따라서 질병의 치료시에 단순히 체질을 진단하여 체질약물을 투여하는 것만으로는 사상의학의 참뜻을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동의수세보원』에서는 「性命論」「四端論」「擴充論」에서 나타나는 인간관에, 의학적인 경험을 더하여 四象人 病證論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의 연관성이 부족하여 사상인 病證論

• 접수일 2006년 06월 21일; 승인일 2006년 08월 04일
• 교신저자 : 이의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
Tel : +82-31-710-3723 FAX : +82-31-710-3780
E-mail : nlnorae@hanmail.net

을 운용해 나가는데 治心을 고려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性情을 바탕으로 하는 사상의학 表裏證에 대한 이해[5]와 太少陰陽人 病證論을 이해[4,7,8]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연구는 太少陰陽人의 體質證, 體質病證, 病證藥理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病證論에서 언급된 심리상태를 위주로 파악하였기에 「病證論」과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을 묶는 연결은 어려웠다.

동무는 「四象人 辨證論」에서 '太陰人에는 항상 怯心이 있는데 怯心이 안정되면 道에 맞지만 怯心이 益多하면 物化되는데 怯心이 심하면 怕心이 되어 결국 怔忡이라는 太陰人의 大病이 생기게 된다[1].'고 하였다. 이는 太陰人 怔忡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치료와 함께 怯心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察於外[2]하는 심리적 치료가 필요함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상임상에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太少陰陽人의 病證藥理의 운용과 함께 喜怒哀樂의 偏着과 心欲이 발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생겼다면 中節[3]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정신적 치료도 필요하다. 이에 저자는 四象醫學에서 병이 왜 생기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病證論을 중심으로 心身醫學的 측면을 살펴보아 심리적·정신적 치료의 중요성과 이를 활용법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Ⅱ. 本 論

1. 四象醫學의 病因과 治心의 중요성

『東醫壽世保元』 「醫原論」에서 東武는 病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옛날 의사들은 心之愛惡所欲喜怒哀樂偏着이 병이 되는지 알지 못하고 脾胃의 水穀과 風寒暑濕이 침범된 것만 병이 되는 줄 알았다[4]"

「五福論」에서는 인간에서 즐거운 것 중 첫째를 '壽'[5]라고 하였는데 『東醫壽世保元』 「廣濟說」에서 長壽를 위해서 연령별, 직업별, 지역별 주의해야 할 점을 서술하고, 簡約 勤幹 警戒 聞見을 통해 酒色財權을 조절을 강조하며, 妬賢嫉能과 好賢樂善의 多病과 大藥이 된다는 점의 강조한다. 이를 東武는 喜怒哀樂의 暴動浪發이 모두 行身不誠하고 知人不明한[6]데서 온다고 하였다. 그래서 질병예방과 질병치료를 위한 知行을 강조함은 사상의학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자 원리가 된다.

그럼 동무가 말한 '心之愛惡所欲 喜怒哀樂偏着'은 證治醫學에서 말하는 七情의 변화에 의해 질병이 발생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七情에 의해 질병이 발생되는 것은 단순한 감정 하나하나의 속성을 가지고 그로 인해 발현되는 氣의 변화로 파악된다. 그러나 동무에서 心之愛惡所欲과 喜怒哀樂의 偏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과 상황에 따라 유발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기본 구성요소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간의 근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七情으로 생기는 병은 그 하나가 氣의 변화로 발현되지만 동무에서 心과 性情의 변화는 臟腑大小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七情중에 왜 喜怒哀樂만을 가져 왔으며 나머지 감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동무의 시선과 초점을 맞추지 못한 것이다.

脾胃飮食과 風寒暑濕 등의 內因과 外因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데 그것은 甲午本 病證論 편명을 外感OO病論과 內觸OO病論으라 하였고, 外感OO論에서 此病 外感表病也[7]라고 한 것처럼 外部에서 인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 胃氣虛弱, 胃氣薄弱 등으로 少陰人의 病機를 설명하기도 하며, 질병예방 및 치료에 있

1)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辨證論」 太陰人恒有怯心 怯心寧靜則居之安資之深而造於道也 怯心益多則放心桎梏而物化之也 若怯心至於怕心則大病作而怔忡也
2)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辨證論」 太陰人 察於外而恒寧靜怯心
3)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謂之和 喜怒哀樂未發而恒戒者 此非漸近於中者乎 喜怒哀樂已發而 自反者 此非漸近於節者乎
4) 『東醫壽世保元』 「醫原論」 蓋古之醫師 不知心之愛惡所欲喜怒哀樂偏着者爲病而但知脾胃水穀風寒暑濕觸犯者爲病
5) 李濟馬原著. 池圭鎔譯解. 東武格致藁譯解. 영림사. 서울 2001. p471 濟衆新編. 五福論. 人生至樂有五, 一曰壽, 二曰美心術, 三曰讀書, 四曰家產, 五曰行世.
6)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天下喜怒哀樂之暴動浪動者 都出於行身不誠而知人不明也
7) 『甲午本』 「少陰人 外感膏病論」 張仲景所論 太陽傷風病 卽少陰人 外感表證也

어서 음식을 포식하지 말고 忍飢할 수 있는 정도로 먹고[8], 淡食[9] 등을 먹으라고 한 것처럼 음식의 조절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장 기본적인 병의 발생 원인은 心欲과 性情의 조절 실조에서 유발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바이러스 세균의 감염과 음식물의 실조 등에서도 병이 유발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에 의해 병리의 변화과정은 사상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治法은 다를 수 있다.

2. 四象人 病證論에서 나타나는 治心의 활용에 대한 모색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이하 甲午本)』과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이하 辛丑本)』을 비교하여 體質病證속에 나타나있는 동무의 心身醫學的 인식을 확인해 보고 이를 사상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四象人 病證論의 복잡하고 다양한 體質病證을 몇 가지 病證과 病理로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조심스러움이 있으나 각 四象人 病證論을 表病과 裏病으로 二大別 하여 病理變化를 고찰하였다.

동무는 『東醫壽世保元』「太陽人 內觸小腸病」에서 '太陽人哀心深着則傷表氣 怒心暴發則傷裡氣 故解佈表證以戒哀遠怒 兼言之也 曰 然則少陽人怒性 傷口膀胱氣 哀情 傷腎大腸氣 少陰人樂性 傷目膂氣 喜情 傷脾胃氣 太陰人喜性 傷耳腦鎭 氣樂情 傷肺胃脘氣'이라 하여 기본적으로 性氣는 表氣를 傷하고 情氣를 裏氣를 傷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太少陰陽人 病證論을 심리적·정신적 측면으로 고찰하였다.

1) 少陰人 病證論

① 少陰人 表病

『甲午本』에서 少陰人 下焦血證을 膂間陽氣가 透表하지 못하고 膀胱에 鬱縮되어 발생한다[10]고

Table 1. 少陰人 下焦血證의 病理
⇧생리기전/ ⇨병리기전, 병증유발/→심리상태

舌下	胃脘	肺	頭腦	『甲午本』	『辛丑本』
膻間 兩乳	胃	脾	背膂	膂間陽氣 ←樂心偏復 ⇩未能透表 鬱縮膀胱證	脾局陽氣 寒邪所掩抑 ×腎陽不能直 ⇧連接於脾局 腎局陽氣 爲邪所拒 ⇨鬱縮膀胱證
臍	小腸	肝	腰脊		
前陰	大腸	腎	膀胱		

하였는데, 이는 樂心으로 背膂의 陽氣가 손상받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11]. 여기서 傷한 곳은 少陰人의 小局인 膂間이지만 증상 발현은 膀胱에 鬱縮되어 下焦血證으로 나타난다. 『辛丑本』에서 下焦血證은 小한 臟인 脾뿐 아니라 大한 臟인 腎까지 함께 영향을 받아서 陽氣가 상승하지 못하여 膀胱에 鬱縮되어 발생한다(Table 1). 여기서 『甲午本』에서는 小한 臟을 傷한 것으로만 보았다면 『辛丑本』은 臟腑大小에 있어 서로 상대적인 관계를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擴充論」에서 喜怒哀樂이 性情으로 발현되는 의미와 性情에 따라 四象人의 能과 不能을 설명한다. 이는 性情의 발현으로 臟腑大小가 형성되어지는 것에 대한 보충설명이고, 또 臟腑大小가 天理의 變化로 인해 固無可論[12]의 대상인 것처럼 여기서 能과 不能의 상태도 인간이 나면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樂性이 深確하면 소음의 口가 地方을 맛보는 것은 能하여 腎이 커진다[13]. 그러나 少陰의 目이 世會를 보는 것은 잘 못하여(不能) 脾小한 臟腑가 생기게 된다[14]. 즉 性氣의 발현으로도 臟腑大小

8)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凡人恭敬則益壽 怠慢則減壽 飮食以能忍飢而不貪飽 爲恭敬
9) 『辛丑本』「少陽人 凡論」 少陽人 吐血者 必蕩滌剛愎偏急 與人並駈爭塗之 淡食服藥
10) 『甲午本』「少陰人 外感膂病論」 張仲景所論 下焦血證 卽少陰人脾局陽氣 爲寒邪所掩抑 而腎局陽氣爲邪所拒 不能直升連接於脾局 鬱縮膀胱之證也
11) 직접 樂心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性氣가 表를 傷한다는 것과 甲午本 少陽人 病證論에서 怒心偏愎則 膀胱之眞陰剝傷也를 통해 유추하였다.
12) 『東醫壽世保元』「四端論」 太少陰陽之臟局短長 陰陽之變化也 天稟之已定 固無可論
13) 『東醫壽世保元』「擴充論」 少陰之精 充足於膀胱而歸腎者 大也
14) 『東醫壽世保元』「擴充論」 少陰之視不能廣博於世會故少陰之氣不充足於背膂而歸脾者 小也

Table 2. 『辛丑本』 少陰人 亡陽의 病理
⇧생리기전/ ⇨병리기전, 병증유발/→심리상태

舌下	胃脘	肺	頭腦
膻間 兩乳	胃	脾	背膂
臍	小腸	肝	腰脊
前陰	大腸	腎	膀胱

⇩下陷大腸而外遁膀胱
×
⇧不能上升於胸膈

陰盛格陽,←(勞心焦思,
陽爲陰抑 樂心極則喜情動)
⇨背表煩熱而汗出

Table 3. 『辛丑本』 少陰人 太陰病의 病理
⇨병리기전 및 병증유발/ →심리적 기제

甲午本	辛丑本
喜心偏着→下達 臍腹大腸之胃氣 虛弱 ⇩不能逐冷氣 (腹痛下利)	(思慮耗氣, 每有憂愁) →胃氣虛弱 ⇩溫氣逐冷氣 大腸之泄瀉

舌下	胃脘	肺	頭腦
膻間 兩乳	胃	脾	背膂
臍	小腸	肝	腰脊
前陰	大腸	腎	膀胱

가 생길 수 있고 이러한 관계 때문에 『辛丑本』 下焦血證 病機가 脾와 腎 어느 한 臟의 문제만이 아니라 상대적인 관계에서 생길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少陰人에서는 心과 性情의 언급이 거의 없는데 『辛丑本』에서 少陰人 亡陽 치험례에서 勞心焦思하는 患兒[15]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少陰人 亡陽은 背膂와 膀胱이라는 바깥부위에서 비록 병이 시작하였지만 大腸이라는 裏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16]으로 樂心極則 喜情動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연관되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煩熱汗出의 발현 부위는 背表이다(Table 2).

表氣를 傷하는 것은 性氣라 하였으므로 少陰人 性氣의 특징을 살펴보면 恒欲處而不欲出하는 것으로 안으로 거하려고 하지 밖으로 나서거나 표출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自反其謀[17]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知行의 방법으로는 矜心을 경계해야 한다[18]고 하였다.

少陰人의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性氣 특징과 樂性深確하여 생기는 臟腑大小으로 인해 少陰人 表病은 表部에서 陽氣가 上升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치법을 益氣而升陽[19] 이를 少陰人의 심리적 치료에서 응용하여 본다면 少陰人은 격려와 용기 등으로 기운을 위로 올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② 少陰人 裏病

胃氣는 營內하는 穀氣로 穀氣自胃中而 下達於大腸하고, 胃中之氣 禦外寒以膂膜[20]하게 하는데 『甲午本』 少陰人 太陰病은 下達臍腹大腸之胃氣虛弱[21]으로 不能逐冷氣하기 때문이다. 『辛丑本』에서 太陰病은 胃氣가 虛弱하지만 冷氣를 아직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유지된다고 보았다(Table 3).이렇게 胃氣가 虛弱해지는 것은 喜心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喜氣가 順動하면 放降하지만, 逆動하면 浪發하여 脾 즉 中上焦가 傷하게 되는 것이다[22]. 그래서 치료에 있어서는 溫胃而降陰[23]의 治法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胃氣를 도와 大腸으로 하달하는 기운을 도와주어 放降하는 원래 陰氣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15) 『辛丑本』「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嘗治少陰人十一歲兒汗多亡陽病 此兒 勞心焦思
16) 『辛丑本』「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亡陽者 陽不上升而反爲下降則亡陽也, 陰盛 格陽於上 則陽爲陰抑不能上升於胸膈 下陷大腸 而外遁膀胱故 背表煩熱而汗出也
17) 『東醫壽世保元』「擴充論」 少陰之處 量可而處也 自反其謀而不弘不能處也
18) 『東醫壽世保元』「擴充論」 少陰之臆宜戒矜心 少陰之臆 若無矜心 絶世之經綸 必在此也
19) 『辛丑本』「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此證 益氣而升陽則得其上策也
20) 『甲午本』「少陰人 外感膂病論」 膂氣衛外 膂氣者陽氣也 胃氣營內 胃氣者穀氣也 陽氣自膀胱 而上升於膂膜也 穀氣自胃中 而下達於大腸也 膀胱之氣 受溫氣於大腸 胃中之氣 禦外寒以膂膜
21) 『甲午本』「少陰人 內觸胃病論」 少陰人下達臍腹大腸之胃氣虛弱 食物壅滯 而歷三四日 至五六七日 新氣雖 則添續漸不快健 終不變革消化下利之證也
22) 『東醫壽世保元』「四端論」 喜氣 放降, 喜樂之氣 逆動則浪發而竝於下也, 下降之氣 逆動而竝於下則脾肺傷
23) 『辛丑本』「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太陰證下利淸穀者 當用藿香正氣散香砂養胃湯薑朮寬中湯 溫胃而降陰

少陰病 역시 胃氣虛弱에 冷氣가 침범하여 泄瀉가 멈추지 않는 것으로『辛丑本』에서는 이를 胃中之泄瀉라고 하였고, 치료로는 健脾而降陰하여야 한다. 위에서 이미 喜氣가 逆動하여 浪發하면 脾가 傷한다고 하였는데 太陰病에서 溫胃而降陰의 治法을 사용하였다면 少陰病에서는 健脾而降陰의 치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脾라는 臟을 사용함으로써 中上焦의 傷함이 太陰病보다 더 重한 병임을 강조하고, 前後(腹背)로 보면 胃 大腸의 前(復)에서 시작한 病이 脾의 後(背)까지 진행하여 더 중한 것임을 강조하였다고 생각한다.

少陰人 喜情促急하는 것은 少陰의 肝이 黨與는 能하지만 少陰의 脾가 交遇를 못하는 것[24]으로 少陰人은 무리 속에서는 인간관계를 잘 하지만 새로운 사람과 사귀는 것을 못한다.

裏氣를 傷하는 것은 情氣로 少陰人에서 情氣는 恒欲爲雌而不欲爲雄[25]이다. 여기서 雌는 雄에 상대되는 암컷의 의미로 여성을 의미한다. 여성사를 몇 마디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雌는 동무의 당시 여성관이었을 것이며, 이것은 당시 시대의 보편적인 여성관이었을 것이다. 1876년 개항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두드러지고, 특히 천주교와 동학 등의 사상보급으로 여성들의 평등관이 개항과 더불어 가속화되어 근대식 교육을 직접 받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경제적·심리적으로 주체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였다[26]. 그러나 여전히 여성과 남성의 구별 없이 대다수의 국민은 전통사회의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지배집단의식이 팽배하여 여성은 사회적으로도, 가정 내에서도 제한적으로 될 수 밖에 없었다[27]. 따라서 여기서 雌의 의미는 밖으로 잘 드러내지 못하고 가정이라는 집단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少陰人은 交遇에서 생기는 浪喜를 太陽人의 모습에서 배워 雖好爲雌 亦或宜雄[28]해야 하는데 이것은 곧 雌의 상대개념이니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로 곧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데 잘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少陰人 裏病은 喜情促急과 情氣 특징으로 裏部에서 陰氣가 제대로 下降하지 못하고 固冷積聚가 생긴다고 보여진다.

이상에서 少陰人은 樂性이 잘 발휘되면 좋으나 이것이 심해지면 喜好不定[29] 생기는데 이 마음은 恒心의 不安定之心과 연결된다. 不安定之心이 안정되지 못하면 脾氣가 活하지 못하므로[30] 進一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31]. 또 少陰人에서 亦或宜雄하는 자세가 없다면 偸逸之心이 생기게 되므로 少陰人의 性氣와 情氣를 잘하기 위해 知行으로 矜心과 奪心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니 이것으로 곧 絶世의 經綸과 識見이 나오게 되는 관건[32]이다.

2) 少陽人 病證論

① 少陽人 表病

『甲午本』에서 少陽人 少陽病은 少陽人의 怒心이 偏愎하면 膀胱眞陰이 傷하는데 이로 인해 陰氣가 下降하지 못하고 膂間에 묶여있는 병이다[33]. 비록 怒心에 의해 小한 臟腑인 膀胱이 傷하였지만 증상의 발현은 膂間부위로, 陰氣를 내리는 것이 少陽人의 怒心으로 傷한 병의 치료과정이다.『辛丑本』에서는 小한 臟腑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小한 臟腑와 大한 臟腑 모두 熱邪로 인한 문제가

24)『東醫壽世保元』「擴充論」少陰之肝 能雅立於黨與 而少陰之脾 不能勇統於交遇
25)『東醫壽世保元』「擴充論」少陰之情氣 恒欲爲雌而不欲爲雄
26) 이배용 전미란 최숙경 조형 박진숙 안연. 韓國女性史 定立을 위한 女性人物 類型硏究 Ⅱ-1876~1919 開港에서 3·1운동까지-. 여성학논집. 1991;Vol.8 No.-p12 (11-92)
27) 정세화 최숙경 이배용 장필화 김영미 박진숙. 한국여성사 정립을 위한 인물 유형 연구. 여성학논집. 1988;Vol.5 No.-. p125(7-130)
28)『東醫壽世保元』「擴充論」少陰之人 雖好爲雌 亦或宜雄 若全好爲雌則偸逸之心
29)『東醫壽世保元』「四端論」少陰人 樂極不成則喜好不定
30)『東醫壽世保元』「四象人 辨證論」少陰人 恒有不安定之心不安定之心寧靜則脾氣卽活也
31)『東醫壽世保元』「四象人 辨證論」少陰人 進一步而恒寧靜不安定之心
32)『東醫壽世保元』「擴充論」少陰之頭宜戒奪心 少陰之頭 若無奪心 大人之識見 必在此也
33)『甲午本』「少陽人 外感膀胱病論」張仲景所論 少陽病 卽少陽人 膀胱下陷之陰氣 爲熱邪所壅 未達下陷 凝聚膂間 膠固囚滯之證也

Table 4. 『辛丑本』 少陽人 少陽病의 病理
⇩생리적기전/⇨ 병리과정. 병증유발/→심리상태

舌下	胃脘	肺	頭腦
膻間 兩乳	胃	脾	背膂
臍	小腸	肝	腰脊
前陰	大腸	腎	膀胱

脾局陰氣 熱邪所壅
不能下降
⇩
× 連接於腎局
腎局陰氣 ⇨凝聚膂間
爲熱邪所陷 膠固囚滯之證

Table 5. 『辛丑本』 少陽人 亡陰의 病理
⇩생리적기전/ ⇨ 병리과정. 병증/ →심리적 기제

舌下	胃脘	肺	頭腦
膻間 兩乳	胃	脾	背膂
臍	小腸	肝	腰脊
前陰	大腸	腎	膀胱

⇩ 不能下降於膀胱
×⇧上逆背膂而內遁膈裏
⇨腸胃畏寒而泄下
陽盛格陰,
陰爲陽壅 ←(怒性極則哀情動
平心靜慮
戒哀心怒心×)

생기며 이로 인해 서로 연접하지 못해서 膂間에 陰氣가 뭉쳐있다[34]고 설명하였다(Table 4). 비록 背膂와 膀胱의 용어 대신 脾와 腎을 사용하였지만 이는 부위를 뜻하는 것으로 陰氣가 묶여 있는 부분은 역시 膂間이다.

少陽人이 怒性이 宏抱하면 少陽의 目이 世會를 보는 것을 能하므로[35] 脾가 大해지지만[36], 少陽人의 不能인 少陽의 口가 地方을 맛보는 것을 잘 못하여[37] 腎이 小해진다[38]. 이는 곧 『草本卷』에서 互相盈縮 迭爲進退[39]하는 관계의 의미와 일맥상통하며, 病理過程에서도 脾와 腎을 상대적인 관계로 인식하여 설명하였다.

『甲午本』에서 少陽人 腹痛 泄瀉를 心欲이나 性情에 의한 손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膀胱內守之眞陰虛弱이라는 병리과정과 稟性剛急則 怒心偏愎也 怒心偏愎則 膀胱之眞陰剝傷也라고 한 부분을 볼 때 怒心을 경계해야 하며, 『辛丑本』에서 亡陰證 치험례에서 平心靜慮 恒戒哀心怒心[40]라고 한 부분을 통해 심리적 정신적 치료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辛丑本』에서 少陽病이 陰氣가 下降하지 못해 생긴 것이라면 亡陰은 오히려 陰氣가 背膂로 올라가 裏部까지 內遁하여 설사를 한다고 하였는데(Table 5), 이는 怒性極則哀情動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表氣를 傷하는 少陽의 性氣는 恒欲擧而不欲措하는데 少陽之擧 量可而擧也 自反其力而不固 不能擧也은 自反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행의 방법으로는 夸心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였다[41].

少陽人의 들려고만 하고 내리지 못하는 性氣 특징과 怒性宏抱로 인한 臟腑大小 특징으로, 少陽人 表病의 病機는 下降해야 할 陰氣가 下降하지 못함으로서 생기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陰氣를 내리기 위한 藥理운용과 마찬가지로 항상 내려놓지 못하는 性氣의 특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심리요법도 陰氣의 下降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② 少陽人 裏病

少陽人에서 裏病은 『甲午本』에서는 內觸大腸病으로 기술하였는데, 이는 哀心偏着으로 大腸이 傷한 것이다. 少陽人의 哀情은 少陽의 肺가 事務

34) 『辛丑本』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張仲景所論 少陽病 口苦咽乾胸脇滿 或往來寒熱之證 卽少陽人腎局陰氣 爲熱邪所陷 而脾局陰氣 爲熱邪所壅 不能下降連接於腎局 而凝聚膂間 膠固囚滯之病也
35)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少陽之目能廣博於世會
36)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少陽之視能廣博於世會 故少陽之氣 充足於背膂而歸脾者 大也
37)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少陽之口 不能廣博於地方
38)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少陽之味 不能廣博於地方故 少陽之精 不充足於膀胱而歸腎者 小也
39) 李濟馬著. 朴性植 釋解.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서울. 集文堂. 2003 p375 互相盈縮 迭爲進退 參伍以變 錯綜其數 求之有道 得之有命 聖人與衆人一同也
40)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嘗見少陽人 恒有腹痛患苦者 用六味地黃湯 六十貼而病愈又見少陽人 十餘年腹痛患苦 一次起痛 則或五六個月 或三四個月 一二個月叫苦者 每起痛臨時 急用滑石苦參湯 十餘貼 不痛時 平心靜慮 恒戒哀心怒心 如此延拖一周年而病愈 又見少陽人小年兒 恒有滯證 痞滿 間有腹痛腰痛 又有口眼喎斜初證者 用獨活地黃湯 一百日內二百貼服 使之平心靜慮 恒戒哀心怒心 一百日而身健病愈
41)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少陽之腹宜戒夸心 少陽之腹 若無夸心 絶世之度量 必在此也

Table 6. 『辛丑本』 少陽人 上·中消 病理
⇩생리기전/ ⇨ 병리기전·병증유발/→심리상태

(病人胸次 不能寬遠闊達而陋固膠小) ↓ × 裏陽升氣⇧ 表陰降氣⇩ ○ ⇨雖險 猶能歲月支撐	舌下	胃脘	肺	頭腦
	膻間 兩乳	胃	脾	背膂
	臍	小腸	肝	腰脊
	前陰	大腸	腎	膀胱

를 행함에 있어서는 能하지만, 少陽의 腎이 居處를 행함에 있어서는 不能[42]한 것이다. 그래서 少陽人의 哀가 事務에서 발현된다면 可治이나 만약 居處에서 哀가 발현되면 腎傷하게 되고 이는 결국 脾大한 결과까지 가져오게 된다[43]. 少陽人이 居處를 잘 하려면 居處를 잘 하는 太陰人에서 배워야 하는데 그 知行의 방법으로 懶心을 경계[44]해야 한다.

『甲午本』에서 中消는 陰虛火動으로 인한 胃熱肉爛이 되어 생긴 병[45]으로 치료에 있어서는 戒哀怒斷酒色[46]을 강조하였다. 『辛丑本』에서 消渴者 病人胸次 不能寬遠闊達 而陋固膠小 所見者淺 所欲者速 計策鶻突 意思艱乏 則大腸淸陽上升之氣自不快足 日月耗困 而生此病也(Table 6)이라 하여 마음을 넓게 쓰지 못하여 병이 생기는 것인데, 견문은 얕고 바라는 바는 커서 大腸의 淸陽이 잘 상승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淸陽을 上升하기 위해서 寬闊則所欲[47]의 攝生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甲午本』에서 下消强中과 陰虛午熱은 數年調治服藥해야 하는데 반드시 戒哀怒斷酒色이 필요하다[48]. 『辛丑本』에서도 陰虛午熱에 대해 能善攝身心服藥해야 10명 중 6~7명이 살 수 있다[49]고 하여 병이 중할수록 服藥과 함께 반드시 攝身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少陽人 裏氣는 情氣에 의해 傷한다고 하였는데 少陽人의 情氣는 恒欲外勝而不欲內守이므로 겉으로 이기려고만 하다보니 내면의 모습에서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懼心으로 표현될 수 있고, 少陽人 哀情이 事務는 잘하지만 居處를 못하는 것과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內守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만약 全好外勝하면 偏私之心必過한다[50]고 하였다. 懼心이 안정되면 道에 맞지만 懼心이 益多하면 物化가 되는데 懼心이 恐心이 되면 健忘이 생기게 되는데 健忘은 少陽人에서 험증이다[51]. 따라서 반드시 健忘의 치료에는 懼心을 안정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少陽人이 察於內[52]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에서 혹시 부족한 부분을 관찰하는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은 少陽人의 外勝하는 情氣특징과 哀情促急로 인한 臟腑大小로 內部에서 陽氣가 상승하지 못하고 鬱熱된 것을 淸裏熱하여 陽氣가 上升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42) 『東醫壽世保元』「擴充論」 少陽之肺 能敏達於事務 而少陽之腎 不能恒定於居處
43) 『東醫壽世保元』「擴充論」 少陽之事務 可以哀 治之而居處 不可以哀 治之也 若遷哀於居處則無益於居處而腎傷也. 少陽人重於事務故 恒有出外興事務之哀心 此心 出於秉彝之敬心也 莫非至善而不謹於居處故 每爲主內做居處人所陷而偏哀 傷臟 以其重外而輕內故也
44) 『東醫壽世保元』「擴充論」 少陽之腰宜戒懶心 少陽之腰 若無懶心 大人之材幹 必在此也
45) 『甲午本』「少陽人 內觸大腸病論」 少陽人 陰虛火動 胃熱肉爛之病 而中消爲此病之主證
46) 『甲午本』「少陽人 內觸大腸病論」 癰疽强中之病 則中消之危證也 治法 宜早宜急 於上消中消 不可差緩 太晩於下消 癰疽强中 宜用 淸凉散火湯 防風通聖散 陽毒白虎湯 必戒哀怒斷酒色
47) 『辛丑本』「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 尤宜寬闊其心不宜膠小其心 寬闊 則所欲 必緩 淸陽 上達 膠小則所欲 必速 淸陽 下耗
48) 『甲午本』「少陽人 內觸大腸病論」 下消强中 胃火肉爛之久病 陰虛午熱 大腸火骨蒸之新病 皆數年調治服藥 然後可以免危病 而下消强中者 當用淸凉散火湯 陰虛午熱者 當用水火旣濟湯 必戒哀怒斷酒色
49) 『辛丑本』「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 夫陰虛午熱飮水背寒而嘔者 表裏陰陽 俱爲虛損 所以爲病 尤險與下消 略相輕重 然 能善攝身心服藥 則[1]十之六七尙可生也 不善攝身心服藥 則百之百 必死也
50) 『東醫壽世保元』「擴充論」 少陽之人雖好外勝 亦宜內守 若全好外勝則偏私之心 必過也
51) 『東醫壽世保元』「四象人 辨證論」 少陽人 恒有懼心 懼心寧靜 則居之安資之深 而造於道也 懼心益多 則放心桎梏 而物化之也 若懼心 至於恐心 則大病 作而健忘也 健忘者 少陽人病之險證也
52) 『東醫壽世保元』「四象人 辨證論」 少陽人 察於內而恒寧靜懼心

3) 太陰人 病證論

① 太陰人 表病

『甲午本』에서 太陰人 병증 분류를 惡寒發熱長感病爲表之表病 陽毒燥澁爲表之裏病이라 하였다가 『辛丑本』에서 陽毒發斑은 裏熱病로 옮겨간다. 瘟病을 『甲午本』에서 表病이라 한 것은 萬歷丙戌余寓大梁 瘟疫 大作 士民 多斃 其證 增寒壯熱이라 한 것처럼[53] 外感에 의해서 發熱이 생기는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의학경험이 축적되면서 비록 外感에서 병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병태가 增寒壯熱 頭面項頰赤腫 咽喉 腫痛 昏憒으로 나타나서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으로 생각하였다. 『甲午本』과 『辛丑本』에서 같은 문장으로 소속만 옮겨졌는데 瘟疫을 경험한 것은 한가지이지만 이 병을 바라보는 동무시각이 차이가 난 것이다. 여기서 볼 때 表裏病의 기준이 外感이냐 內觸이냐 하는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瘟疫이 전염성의 질환처럼 外部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또 感四時不正之氣 使人痰涎壅盛 煩熱 頭疼身痛 增寒壯熱라고 한 것을 볼 때 전염성의 질병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辛丑本』에서 嘗治太陰人胃脘寒證瘟病이라 하여 瘟病임에도 『胃脘受寒表寒病論』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를 통해 사람의 평소 증상이 어떠하였냐[54]에 따라 병리과정이 다르다. 즉 病因이 비록 外感이라 하더라도 그 병을 받는 사람(四象人의 臟腑性理)에 따라 病證藥理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辛丑本』에서 寒厥의 病理에 관하여 勞心焦思로 胃脘이 衰弱해지고 이로 인해 表局을 虛薄하게 만든다고 하여 마음의 상태가 병리적 차등적 상황을 유발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해준다.

太陰人의 喜性廣張은 太陰之鼻 能廣博於人倫而太陰之耳 不能廣博於天時이며 太陰人 表氣를 傷하는 太陰人 性氣는 恒欲靜而不欲動하였는데 이런 마음은 어떤 일을 이루고자 노력하지 않는데(움직이지 않음) 얻으려고 하여 恐懼之心이 생길 수 있다[55]. 따라서 恒欲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 잘 헤아리는 自反[56]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知行의 측면에서 戒驕心[57]의 자세가 필요하다.

② 太陰人 裏病

『甲午本』에서 太陰人 裏病은 腹痛 自利 食滯痞滿 痢疾 浮腫 有腹痛中風과 虛勞 夢泄 無腹痛中風으로 나누어진다. 『甲午本』의 太陰人 病證論은 의학적 이론이 정립되지는 못하였지만 병의 緩急와 輕重을 나누는 시각은 있다. 裏之表病인 浮腫에서 禁嗜慾戒侈樂[58]의 調養攝身을, 裏之裏病에 해당하는 虛勞夢泄의 설명에서 思慮所傷이니 必禁嗜慾戒侈樂[59]할 것을 제시해 두었다. 太陽人 內觸小腸病[60]과 비교해 본다면 太陰人은 胃脘呼氣液陽溫之氣가 不足한 則小腸吸氣液陰凉之氣가 必盛하는 병리를 가지는 것으로 『辛丑本』 太陰人 燥熱의 병리를 설명하는 바탕이 된다. 여기서 太陽人의 부족한 부분으로 太陽人의 盛한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甲午本에서 小한 장부의 병리변화가 大한 臟腑에 영향을 주는 本의 의미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太陰人의 情氣는 恒欲內守而不欲外勝하여 안으로만 지키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 이것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太陰人이 자기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外勝을 배우지 못한다면 物欲之心必過하게 되므로[61] 주의하고, 知行의 측면에서

53) 溫疫이 유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을 보았는데 이는 전염병(疫氣)의 발생으로 보았다.

54) 『辛丑本』「太陰人 胃脘受寒表寒病論」凡瘟疫 先察其人素病如何 則表裏虛實 可知已 素病寒者 得瘟病 則亦寒證也 素病熱者 得瘟病 則亦熱證也 素病輕者 得瘟病 則重證也 素病重者 得瘟病 則險證也

55)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p77.太陰之心 大欲得所欲而恐懼之心

56) 『東醫壽世保元』「擴充論」 太陰之靜 量可而靜也 自反其知而不周 不能靜也

57) 『東醫壽世保元』「擴充論」 太陰之頜 宜戒驕心 太陰之頜 若無驕心 絶世之籌策 必在此也

58) 『甲午本』「太陰人 內觸胃脘病論」 浮腫危證也 三年內 不再發然後 方可論生 禁嗜慾 戒侈樂 調養攝身之道 必在其人

59) 『甲午本』「太陰人 內觸胃脘病論」 太陰人 一證 有夢泄病 其病爲 虛勞 而思慮所傷也 太重且難 不可不急治 必禁嗜欲 戒侈樂

60) 『甲午本』「太陽人 內觸小腸病論」 太陽人 小腸吸氣液陰凉之氣 不足 則胃脘呼氣液陽溫之氣 必盛也

61) 『東醫壽世保元』「擴充論」 太陰之人雖好內守亦宜外勝 若全好內守則物欲之心 必過也

戒侈心[62]이 필요하다. 이것은 太陰人에서 樂情이 促急하여 居處는 잘하지만 事務는 잘 못하는 결과와 연관이 된다[63]. 이렇게 物欲이 過하거나 해서 侈樂無厭 慾火外馳하게 되면 肝熱大盛, 肺燥太枯하게 되고 이는 곧 『辛丑本』 太陰人 燥熱의 병리이다. 太陰人이 이렇게 잘 쌓아두고, 밖으로 내뿜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고자 하는 物慾의 억제와 함께, 땀이라는 생리적 상황으로 몸에서도 잘 쌓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 怯心이 안정되지 못하면 怔忡이라는 太陰人의 大病이 생기게 되고, 이것을 안정하기 위해서는 察於外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외부환경의 변화를 관찰하여 변화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4) 太陽人 病證論

太陽人 病證論은 동무 스스로도 경험의 부족으로 病證藥理의 구성에 어려움이 있음[64]을 기술하면서 太陽人有病者戒 若論治法 一言弊曰 遠嗔怒而已矣뿐이라고 하였다. 太陽人 병은 특히 重險之證에 이르기 전에는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65] 이미 병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는 重險之證이고 이 때는 결국 遠嗔怒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治法이 될 수밖에 없다.

太陽人의 解体에 관해서 太陽人腰脊病太重證也 必戒深哀遠嗔怒修淸定할 것을 강조하면서, 만약 大惡寒發熱身體疼痛之證이 있다면 腰脊表氣充實하여 치료가 쉽다고 하였다[66].

太陽人 噎膈은 意强而操弱 意强則胃脘之氣上達 而呼散者太過而越也 操弱則小腸之氣中熱 而吸聚者不支而餒也라고 하였다. 意慮操志는 津海藏意 膏海藏慮 油海藏操 液海藏志에서 나오는 것으로 四黨에서 肺黨은 强하고 肝黨은 弱한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小腸吸氣液陰凉之氣不足 則胃脘呼氣液陽溫之氣必盛하여 胃脘血液乾槁其勢固로 噎膈이 생기는 병리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胃脘陽溫之氣가 太盛해서 胃脘이 乾枯하는 것만이 아니라 上呼之氣太過 而中吸之氣太不支한 까닭에 食物不吸入而還呼出한다고 하였다.

太陽人은 哀性遠散하고 怒情促急한다. 哀性遠散하면 太陽之耳가 能廣博於天時하고 太陽之鼻는 不能廣博於人倫하며, 怒情促急하면 太陽의 脾가 交遇를 하는 것은 能하지만, 太陽의 肝이 黨與를 하는 것을 잘 못하다. 이것은 太陽人이 새로운 사람과의 交遇에서는 삼가 잘 하지만, 친숙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怒心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67].

太陽人의 性氣는 恒欲進而不欲退하고, 太陽人의 情氣는 恒欲爲雄而不欲爲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太陽人은 急迫之心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 진취적이고 남성적인 특징으로 항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이와 같이 太陽人은 呼散之氣가 강하여 쌓아두지 못하고 밖으로 뿜는 양상이며, 자꾸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하니 채워지는 것이 부족해 질 수 있다. 따라서 暴怒를 주의해서 더 뿜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性氣 情氣의 특징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過하게 되거나 이로 인해 다른 장부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性氣는 太陽之進 量可而進也 自反其材의 노력과 함께 知行의 측면에서 伐心을 경계하고, 情氣에서는 雖好爲雄 亦或宜雌과 함께 竊心의 경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만약 전적으로 好

62) 『東醫壽世保元』「擴充論」 太陰之肩 若無侈心 大人之威儀 必在此也

63) 『東醫壽世保元』「擴充論」 太陰之腎 能恒定於居處 而太陰之肺 不能敏達於事務

64) 『東醫壽世保元』「新定 太陽人病 應用設方藥 二方」 論曰 藥驗不廣者 病驗不廣故也 太陽人數從古稀少故古方書中 所載證藥 亦稀少也 今此五加皮壯脊湯 猴藤植腸湯 立方 草草 雖欠不博 而若使太陽人有病者 因是二方 詳究其理而又變通置方 則何患乎無好藥哉

65) 『東醫壽世保元』「四象人 辨證論」 其病 噎膈反胃解体證 亦自易辨 而病未至重險之前 別無大證 完若無病壯健人也

66) 『甲午本』「太陽人 外感腰脊病論」 若有大惡寒發熱身體疼痛之證 則腰脊表氣 充實也 其病 易治 其人亦完健

67) 『東醫壽世保元』「擴充論」 太陽人 謹於交遇故 恒有交遇生疎人慮患之怒心 此心 出於秉彝之敬心也 莫非至善而輕於黨與故 每爲親熟黨與人所陷而偏怒 傷臟 以其擇交之心 不廣故也

爲雄하면 放縱之心이 必過할 수 있다. 또 急迫之心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退一步하는 것이 필요[68]하다.

Ⅲ. 總括 및 考察

심리상태나 마음의 감정 변화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람마다 각기 나타날 수 있는데 동무는 이를 네 가지의 특징으로 요약하여 喜怒哀樂으로 정의하였다.

『辛丑本』에서는 『甲午本』의 시각이 거의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면서 治驗例에서는 거의 환자의 性情과 심리상태를 기술하여 後學들이 공부함에도 중요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부분 이외에도 少陰人 藏厥을 喜好不定而計窮力屈 則心煩躁也라고 하고, 少陽人에서 平心靜思하면 陽氣上升輕淸하고, 勞心焦思하면 陽氣下陷重濁하여 火氣가 생긴다고 하였다. 또 구체적 증상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소음인 亡陽[69], 泄瀉[70]와 少陽人 腹痛泄瀉[71], 中風吐血[72] 및 太陰人 浮腫[73], 虛勞 夢泄[74] 등에서 心欲의 警戒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시를 통해 『辛丑本』에서는 『甲午本』에서 戒OO라고 표현한데서 그치지 않고 좀 더 상세하게 四象人의 심리적 상태를 窮究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少陽人의 病은 火熱의 病態로 變化가 신속하여[75] 임상에서 적합한 시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특히 少陽人에서 다른 체질에 비해 攝生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心의 愛惡所欲과 喜怒哀樂의 偏着이 질병의 발생과 예후 및 치료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으로 少陰人에도 勞心焦思, 少陽人에도 勞心焦思, 太陰人에서도 勞心焦思라는 심리적 기제가 반영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심리적인 상태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다만 四象人에서 恒心과 喜怒哀樂의 차이로 인해 다른 生理的 病理的 상황을 만들게 된다. 少陰人에서 藏厥을 설명할 때 勞心焦思는 喜好不定한 상태로 항상 좋게 얻기[76]를 원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저렇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77]를 생각하는 不安定之心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少陽人에서는 事務를 할 때[78] 크게 얻고자 하는 마음[79]이 생겨서 勞心焦思 하는 것이다. 太陰人에서는 항상 크게 얻고자 하여 불안한 마음[80]과 움직이기 보다는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고[81] 物欲으로 인해 생기는 것[82]으로 이것이 胃脘을 虛薄하게 만들고 즐거움이 지나치게 되면 侈樂無厭慾火外馳로 燥熱病이 생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病이 重하고 險할수록 心欲과 喜怒哀樂이 偏着되지 않도록 조절이 중요하다. 가벼운 병은 服藥과 調養으로도 조절할 수 있지만, 병이 重할수록 服藥만으로는 안되니 攝心身과 기타 생활에서의 조절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동무의 생각을 따라간다면 임상에서도 太少陰陽人에 따라 喜怒哀樂의 偏着을 調節하고 心의 愛惡所欲을 조절하는 심리요법이 필요하다. 이를 요약하여 太陰人은 戒喜樂 察於

68) 『東醫壽世保元』「四象人 辨證論」 太陽人 退一步而恒寧靜急迫之心
69) 『辛丑本』「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少陰人 汗多亡陽病 此兒 勞心焦思
70) 『辛丑本』「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少陰人 思慮耗氣 每有憂愁則必腹痛泄瀉
71) 『辛丑本』「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少陽人 十餘年腹痛患苦…不痛時 平心靜慮 恒戒哀心怒心, 少陽人小年兒 恒有滯證痞滿間有腹痛腰痛…使之平心靜慮 恒戒哀心怒心
72) 『辛丑本』「少陽人 凡論」 少陽人 吐血者 必蕩滌劻愎偏急, 中風吐血 調養爲主 服藥次之
73) 『辛丑本』「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 太陰人腹脹浮腫病 戒侈樂禁嗜慾
74) 『辛丑本』「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 太陰人證 有夢泄病 此病 出於謀慮太多 思想無窮
75) 『辛丑本』「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少陽人病 以火熱爲證故 變動 甚速 初證 不可輕易視之也
76)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p77 少陰之心 每欲得所欲而好樂之心
77) 이제마저. 량병무 차광석역. 東武遺稿. 해동문화사. p161 少陰人之慾見利於人之喜 最重也
78) 이제마저. 량병무 차광석역. 東武遺稿. 해동문화사. p161 少陽人之慾臨事之哀最重也
79)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p77 少陽之心 大不得所欲而憂患之心
80)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p77. 太陰之心 大欲得所欲而恐懼之心
81) 이제마저. 량병무 차광석역. 東武遺稿. 해동문화사. p161 太陰人之慾生居之樂最重也
82) 太陰之人 雖好內守 亦宜外勝 若全好內守則物欲之心 必過也

外, 少陽人은 戒哀怒 察於內, 少陰人은 戒喜樂 進一步, 太陽人은 戒哀怒 退一步[83]이라 하였다.

의학은 하나의 과학집단이며, 그 기본 과제는 사람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는데 있다. 즉 사람으로 하여금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며 이미 병든 사람을 치료하여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학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질병의 본질, 질병의 원인, 질병의 발전법칙 등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84]. 이를『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말한 "治病, 必求於本[85]"이라 할 수 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의 헌장에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86]. 현대에서 의학은 단순히 해부학적 인간적으로 접근해가기 보다는 사회적 인간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복잡한 사회에서 먼저 주어진 能不를 알고, 過함과 不及에서 조절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무가 말한 家家知醫 人人知病然後可以壽世保元이라 생각된다.

Ⅳ. 結 論

1. 四象醫學에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喜怒哀樂으로 나타나는 性情과 性氣, 情氣 및 恒心으로 인해 太少陰陽人의 體質病證이 생기게 되고, 能不에 따라 知行을 강조하여 몸과 마음이 유기적로 연계된다. 이는 溫疫 등 外部에서 발생하는 病因에 있어서도 동무는 평소 그 사람의 상태(體質證)에 따라 四象人 病證藥理(體質病證)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2. 四象人 病證論에서도 四象人 體質에 따라 약물을 운용해 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각 太少陰陽人에 필요한 심리치료도 필요함을 강조한다.

3. 四象人의 심리치료의 기본은 太陰人은 戒喜樂 察於外, 少陽人은 戒哀怒 察於內, 少陰人은 戒喜樂 進一步, 太陽人은 戒哀怒 退一步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임상적으로 활용한다면 少陰人은 격려로 陽氣를 올려주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며, 少陽人은 기운을 내리도록 하고 내부적으로 부족해지지 않는지 관찰하며, 太陰人은 物慾을 경계하고 外部變化에 대해 겁먹지 않게 돌아보고, 노력하여 쌓이는 것을 적게 하며, 太陽人은 暴怒를 조심하여 흩어지는 기운을 막고 조금 물러설 줄 아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4. 四象醫學은 인간이 고립된 개체가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미를 가져야 진정한 인간다움으로 보는데, 삶 가운데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心과 性情, 일상생활습관의 조절과 자세 등을 강조하여 질병중심이 아니라 인간중심적 의학임을 알 수 있다.

Ⅴ. 參考文獻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개정판. 여강출판사, 서울, 2002.
2. 宋一炳. 四象人 體質證과 體質病證의 成立過程에 대한 硏究. 사상체질의학회지. 1994;6(1):71-79.
3. 宋一炳. 사상인병증약리의 성립과정과 그 운영정신에 대한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1996;8(1):1-13.
4. 金達來. 宋一炳. 四象醫學 病證論에 關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1989;1(1):41-47.
5. 조황성. 性情과 表裏證과의 관계. 사상체질의학회지. 1993;5(1):49-51.
6. 이수경, 고병희, 송일병. 사상의학의 형성 과정에 관한 문헌적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10(1):41-54.
7. 이수경, 송일병. 東醫壽世保元 太少陰陽人의

83) 『東醫壽世保元』「四象人 辨證論」太陰人 察於外而恒寧靜怯心 少陽人 察於內而恒寧靜懼心 太陽人退一步而恒寧靜急迫之心 少陰人 進一步而恒寧靜不安定之心 如此則必無不壽. 又曰 太陽人 恒戒怒心哀心 少陽人 恒戒哀心怒心 太陰人 恒戒樂心喜心 少陰人 恒戒喜心樂心 如此則必無不壽

84) 병리학. 대한병리학회. 고문사. 서울. 2003. p

85) 楊維傑編. 黃帝內經譯解. 成輔社 서울. 1980 p42

86) 유지수 김조자 박지원. 청소년들의 건강지각, 건강행위, 건강상태와의 상관관계 연구. 延世論叢. 1985;21(5) p.171(169-187)

病證論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 11(2):1-26.
8. 고우석, 이수경,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性情에 의한 表裏病證의 발생기전에 관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4;16(2):44-51.
9. 李濟馬著. 朴性植 釋解.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集文堂, 서울, 2003.
10. 李濟馬著.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사상체질의학회. 2001.
11. 李濟馬原著. 池圭鎔譯解. 東武格致藁譯解. 영림사, 서울, 2001.
12. 李濟馬著. 량병무, 차광석 譯. 東武遺稿. 海東醫學社. 1999.
13. 池圭鎔. 安圭錫.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中 四情의 作用機轉 및 病理變化에 대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1993;(5)1:53-59.
14. 楊維傑編. 黃帝內經譯解. 成輔社, 서울, 1980: 42.
15. 이배용, 전미란, 최숙경, 조형, 박진숙, 안연. 韓國女性史 定立을 위한 女性人物 類型硏究 Ⅱ -1876~1919 開港에서 3·1운동까지-. 여성학논집. 1991;8:11-92.
16. 정세화 최숙경 이배용 장필화 김영미 박진숙. 한국 여성사 정립을 위한 인물 유형 연구. 여성학논집. 1988;5:7-130.
17. 병리학. 대한병리학회. 고문사, 서울, 2003.
18. 유지수, 김조자, 박지원. 청소년들의 건강지각, 건강행위, 건강상태와의 상관관계 연구. 延世論叢. 1985;21(5):169-187.